



오뎅이 엄마의 우뚝서기 후원 후기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원조사업으로, 매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근로빈곤 여성가장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 「오뎅이 엄마의 우뚝 서기」 후원 소식을 전합니다.

사별, 이혼, 가정폭력, 미혼모 등 다양한 이유로 급작스럽게 가장이 된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며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기 때문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홀로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가장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난 1월 14일 서울주보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했는데, 총 368명의 이웃이 57,439,88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모금된 후원금은 총 16명의 근로빈곤 여성가장들에게 지원되었는데, 그중 6명의 소식을 전합니다.

① 관악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최○○

개인회생 변제금과 빚을 갚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가던 어머니는 생계비 지원으로 오랜만에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번 짓눌려 왔던 경제적 어려움이 잠시나마 해소되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② 양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문○○(경기도 양주시)

남편이 사기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후 7개월 된 아이와 찜질방에서 생활했었던 어머니는 생계비 지원과 더불어 임대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게 되어 아이를 양육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③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전○○(경남 거제시)

간경화로 사망한 남편의 장기입원 비용으로 많은 빚을 혼자 해결해야 했던 어머니는 조선 외주업체의 폐업으로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생계비 지원으로 중학생이 된 둘째 아이의 교복을 구입하고, 그동안 치료받지 못한 당뇨를 치료했습니다. 현재는 임시직이지만 다시 일자리를 얻어 어느 때 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④ 산엔청복지관, 미○○○(경남 산청군)

캄보디아 국적으로 한부모이기도 한 장애아동의 어머니는 배우자 사망 후 경제적 부담으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생계비 지원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열심히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⑤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이○○(부산)

자녀의 ADHD 치료로 정기적인 일을 할 수 없어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머니는 건강 악화로 일을 중단했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생계비 지원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⑥ 용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최○○(경기도 용인시)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이혼 후 안암 수술로 수많은 방사선치료를 받던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암이 전이되어 심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월세가 체납되어 월세 보증금까지 모두 사용해 생계가 막막했지만, 생계비 지원으로 경제적 불안감 없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의 손길 후원자 여러분 덕분에 여성가장들이 밀린 월세를 해결하며 언제 퇴거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해방되었고, 미루고 미루던 아픈 몸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장들이 느낀 작은 희망은 아이들의 밝은 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도 도움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 받은 만큼 꼭 돌려주고 싶어요.” “어두운 제 삶에 한줄기 빛을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움주신 분들의 바램대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여성 가장들)